

불 산

유리가공용, TV브라운관용, 스테인레스용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 불산은 내수 및 수출에서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생산 및 판매기업들은 수출 증대나 신규수요 개척보다는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속에 가격형성과 용도다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 무수불산 공급은 울산화학이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45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항정밀은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생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5% 공업용불산은 포항정밀이 7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60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울산화학은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불산 판매는 석수화학이 독점 판매하고 있다. 국내 불산수요는 55%기준 94년 7000톤에서 95년에는 소폭 증가한 7000~7500톤 수준이 예상된다.

내수의 저조는 무수불산의 경우 프레온가스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CFC 수요감소로 무수불산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94년 1000톤에서 95년에는 1200톤이 예상되고 있다.

공업용 불산의 용도별 수요비중을 보면 TV브라운관용 35%, 스테인레스용 35%, 유리가공용 20%, 기타 10%를 차지하고 있다.

< 96 화학연감 >